AnkaraHope 2022-1



1. CHILDRENS ACTIVITY CENTER

1-1 고아원 방문

이ㅅ람권의 수치문화로 인해 사립 고아원을 허용하지 않기에 터키의 모든 고아들은 오직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고아원에서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앙카라 S국립고아원에 새롭게 출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서류들을 보내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시작된 펜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열어 주실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 왔습니다. 2014년 A국립고아원을 방문하면서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고, 저희가 난민청소년센터도 돕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B매니저로부터 12월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S고아원 원장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 30일 만남을 예정한 후에 혹시 고아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12월 31일 저녁에 고아원의 모든 식구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밤 40kg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약 350여 명의 고아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F원장은 저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전형적인 공무원인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중에 이 분은 정말 고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 관해서는, 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외국인은 없는데 지난 수년 동안 A국영고아원과 함께 했던 것을 들었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아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꾸준히 고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생색을 내기위해 고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 고아원을 무슨 박물관처럼 방문하는 행태에 관해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구하는 늘 동일한 간구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고 1월의 만남을 기약하며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S고아원과 진심이 담긴 교제가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만남이 되기를…

1-2. 난민청소년센터



7월부터 매월 한번씩 난민청소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난민청소년센터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해 주면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눈은 붉어지고 잠시지만 기쁨의 웃음을 보게 됩니다. 덩치는 성인이지만 여전히 어린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왜 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곳에서 만나게 된 이라크에서 온 B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복ㅇ을 보여주고 증거했던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ㅂ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어려움,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회피하고자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ㅅ람권에서 태어나 오직 그 하나만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 큰 빛이 보여지고 참된 소망의 이유를 품을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가야 하는 긴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에, 그리ㅅ도의 마음을 품고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터키의 공동체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정착을 돕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로 연결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난민센터에서 지내오던 18세가 된 18명의 청소년들이 1 월중에 센터에서 나오게 됩니다.이 아이들은 앞으로 앙카라에서 스스로 살아 가야합니다.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민청소년센터에서 나오는18명의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2. 복ㅇ주의 사회적 기업

종교가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터키는 문화가 된 이ㅅ람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기회마저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또한 난민들의 대부분도 이ㅅ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 자들입니다. 과연 저들에게 어떻게 ㅂ음이 들려져야 할까? 들려지는 것이 힘든 곳에서는 보여지는 것이 우선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 우리의 삶터에서 시작되는 사회적 ㄱ회개척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ㄱ회개척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래 전에 나눔을 가진 일화를 한번 더 인용을 합니다. G*A가 매년 진행해 왔던 [한국문화캠프]에 참석했던 한 터키청년이 전체일정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ㄱ독교인들이 어떤 동물들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배워 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ㄱ독교인들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겪은 그들은 내가 배워왔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터키에서 누군가 ㄱ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혐오하고 박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ㄱ회개척은 터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ㄱ회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이웃들에게 먼저 그ㄹ스도인됨을 보여주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복ㅇ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길들을 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나 우선], [내 가정 먼저], [우리 예배 공동체] 중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비와 해와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을 주신 일반 은혜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G*A의 기업활동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복ㅇ주의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ㄱ회개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2년은 흑암과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치는 우리 모든 그리ㅅ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두손 모읍니다.

삶의 터전에서 ㄱ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3. 현지 공동체를 섬기며...



이러한 비전으로 저희들은 현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ㅇ배하고 ㅊ양하며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함께 두손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섬기고 있는 [생명길] 공동체에 요즘은 30여 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참혹한 현실에 참된 것을 찾으려는 갈급한 사람들이 매주 몇 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터키 전역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할ㄹ루야! 팬데믹으로 인해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레이스는 매주 맛있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성ㄷ의 교통을 조금이라고 돕고 있습니다. 케빈은 2022년부터 ㅇ배를 위한 방송부를 섬기기 시작했고 2022년 후반부터 섬기게될 말씀사역과 성찬인도를 위해 손 모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지 공동체가 참된 ㄱ회가 되는 것을 돕고, 추수의 때를 기대하는 이 시대에 일꾼들이 올바른 ㄱ회로 바로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터키 ㅇ배 공동체가 ㅇ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